

자치구간 경계조정 차일피일 기초의원 선거구는 어찌하나

광주 총선때 선거구 적용하면
의원수 줄어드는 등 부작용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동구와 북구의 일부 행정동(洞)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각 당의 동구지역위원회가 남구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을 공천해야 하는 혼란도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형적인 선거구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해소하고, 정치논리가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 당시 만들어 놓은 선거구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다 보니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 수가 줄어드는 등 많은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와 남구

가 합쳐져 동남갑·을 선거구로 바뀌었으며, 북구갑과 북구을도 몇 개의 동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선거구가 각각 조정됐다.

동구의 경우,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지면서 동구와 남구를 합쳐 동남갑과 동남을이라는 새로운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동남갑 선거구는 봉선·월산·주월·효덕·송암·대촌동 등 기존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동남을 선거구는 기존 동구 일원에 남구 양림·방림·사직·백운동 등이 편입됐다.

문제는 기존 동구 선거구에 남구 일부 지역을 편입시키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동구지역위원회였던 동남을지역위원회가 남구지역인 양림·방림·사직·백운동의 기초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지난 총선 당시, 인구상한(28만명)을 넘은 광주 북구를(29만 5000여명)은 오지 1·2동과 임동을 북구갑에 떼어줬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숫자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14개 동이었던 북구갑은 8명, 13개 동이지만 인구가 많았던 북구을은 10

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으로 북구갑이 17개동이 되면서 북구갑의 기초의원 수도 늘려야 하게 됐다. 현재 선거구별 기초의원 수는 인구와 법정동 수를 토대로 배분한다.

매년 선거 때만 되면 광주지역 국회의원 의석수인 8석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행정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간 경계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수차례 구간 경계조정이 논의됐지만 국회의원과 구청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동구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을 둘러싼 선거구 논란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하다”면서 “단순히 원활한 선거 진행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치권과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불합리한 광주지역 자치구 경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빛원전 방재 합동훈련

26일 영광스피드움에서 열린 '2017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방사능 오염된 환자를 응급치료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외지인 당첨 제한 투기 막아야

복마전
아파트 분양 시장

③ 자치구 검증 강화해야

주택공급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엄격하다. 최근 광주지법은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서 청약통장 매매(일명 점프통장)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로 일하면서 청약통장 보유자 모집, 위장전입시켜 분양받은 뒤 이를 전매, 그 차익을 쟁전 외부 투기세력에게 이례적으로 실행을 선고했다.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대단한 범죄인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 수법 및 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이 적발되는 경우는 극소수다. 이들 투기세력이 광주 아파트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탈

청약·예비입주자 모집 등
건설업체가 좌지우지
전매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법을 가려내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는 아파트 청약, 분양, 예비당첨자 선정 등에 있어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불법·탈법 아파트 청약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광주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등은 1순위나 가점제에 투기세력이 깊숙이 개입해 문란해져버린 광주 아파트 시장에서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과거 6개월로 제한하면서 무주택자로 남아 계속 청약시장에 참가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아파트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자치구가 법으로 규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입주자 승인 및 통보, 예비입주자 선정,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에 있어서 자치구에 보고·통보해야 하며, 특히 예비입주자 선정의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2면에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호타이어 채권단 주도 정상화...박삼구 회장 퇴진”

산업은행 “금호 자구안 미흡...박회장 우선매수권도 포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직에서 전격적으로 물러

난다. 앞으로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자율협약)에 돌입하게 된다.

26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가 제시한 자구 계획은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면한 경영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채권단 주도로 정상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 경영진과 함께 경영에서 즉시 퇴진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이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악발'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진 퇴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호그룹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영 퇴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결정권은 채권단에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안을 최대한 설명했는데 (이를 채권단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채권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현 경영진과 함께 경영에서 즉시 퇴진하는 한편 우선매수권도 포기하기로 했다. 또 상표권과 관련하여 금호그룹은 영구사용권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 금호타이어는 해외법인 매각·인적 쇄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형태의 느슨한 워크아웃) 등 정상화 추진방안과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든 무는 것 가냐!!
일시 : 10월 15일(日) 9:3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노 동 일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9월 30일(토) ~ 2018년 3월 30일(금) ◆

일본(큐슈, 야마구치)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운항 / 화, 금, 일요일 출발)

출/도착시간 무안(18:20) → 기타큐슈(19:30), 기타큐슈(20:20) → 무안(21:30)

[실속] 북큐슈 549,000원부터
[실속] 야마구치 559,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629,000원부터
북큐슈 온천호텔 559,000원부터

무안 ↔ 기타큐슈 전세기 운항

9. 30(토) ~ 10. 9(월) 추석연휴 매일!!

호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2(월), 10/3(화), 10/6(금)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 ~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7. 11. 17(금) ~ 2018. 5. 18(금)

하요일출발출/도착시간무안(08:05)→다낭(10:40), 다낭(14:40)→무안(20:30)
금요일출발출/도착시간무안(21:35)→다낭(00:10),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 · 호이안 · 1일 자유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 · 호이안 · 핫스프링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팁 · 노음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99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노팁 · 노음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949,000원~ / 3박5일(금) 1,049,000원~

※ 포함사항은 상품에 따라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동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 : 1박, 국내여행 5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수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항공 및 항공료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의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 경비(음식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